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과 쓰기 교육적 의의

김 경 주(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구어적 텍스트의 보편화 양상
3.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
4. 구어적 텍스트의 쓰기 교육적 의의

1. 들어가는 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언어사용 방식도 이들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상대방과 직접 마주 보고 말하거나, 글을 써서 전달하던 방식 대신에 화면 위에서 글을 쓰지만 실제로는 상대와 말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의 언어사용 양상이 나타났다. 이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은 말과 글로 구별되어 온 우리 언어 생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텍스트들의 특성은 글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문체적으로는 말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과 글을 구별하여 지도하려는 전통적인 교육의 경우, 이런 언어 사용 양상은 국어의 오용 현상이며, 따라서 교정 교육의 대상이 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쓰기 지도를 할 때, 교사들은 학생들이 쓰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말하듯이 쓰라는 책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하듯이 쓰는 것'은 분명 '글을 쓰는 것'이지 '말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이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글'을 쓰면 교사는 그 글이 '글의 특성'을 지니도록 고쳐주면서 지도하게 된다. 쓰기 지도는 어느 정도 지도하고자 하는 글의 형태에 대한 전형형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글'로서의 특성을 지니지 못하는 글은 쓰기 능력의 미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도 대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여기에서 다루는 '글이 아닌 글'은 쓰기의 지도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매체에서도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글쓰기 방식을 단지 국어의 오용 현상으로 보거나, 교정 대상으로 파악하기보다 '매체 환경에 따른 글쓰기'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 교육적 입장에서 이런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교육적 가치를 찾아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텍스트의 주된 사용자들이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청소년층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가 청소년층의 언어 현실을 이해하며, 그로부터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면, 국어 교육이 실제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통신 네트워크 상의 텍스트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모습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대화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제 대화 장면, 자료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주로 완결된 문서들로 소통되는 장면, 그리고 게시판, 낙서장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글 소통 장면이다. 이 중, 대화방에서 일어나는 언어사용 장면은 공간만 다를 뿐, 실제 대화와 같은 상황으로 말하기 장면과 유사하다. 그리고 자료실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 사용의 경우는 독자들의 일방적인 읽기를 전제하므로 책이나, 글의 소통 장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게시판 등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게시판 글¹⁾’과 같은 언어 사용 장면의 경우는 앞의 두 장면이 혼용되어 있는 모습으로 구어와 문어가 구별되는 일상적인 언어사용 장면과 많이 다르다.

이 글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장면의 글이다. 이 장면에 참여하는 글들은 말하기의 특징과 글쓰기의 특징을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어와 문어, 구어체와 문어체가 혼용되어 있다. 이런 글의 필자들은 자신이 완성해 놓은 것이 글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글보다는 말의 특성을 따르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가 글로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말의 특성을 따르고 있는 이들 텍스트를 ‘구어적 텍스트’로 구별하고, 이 유형에 속하는 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²⁾.

2. 구어적 텍스트의 보편화 양상

최근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서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컴퓨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PC 통신과 인터넷 같은 새로운 매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매체는 의사 소통의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순식간에 새로운 형태의 언어사용 방식을 유포시켰다³⁾. 이 새로운 언어 활동들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상의 네트워크를 기

-
- 1) ‘게시판 글’은 ‘게시판에 올리기에 적절하게 쓴 글’이라는 의미로 필자의 임의적인 명명이다.
 - 2) 이 ‘구어적 텍스트’는 ‘구어체 텍스트’와 구별하고자 한다. ‘구어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글에 구현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 때, ‘구어체’로 표현된 글은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므로,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글’과는 문체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3) 박성익(1998 : 1-3)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세계에서의 의사 소통 방식은 인간들이 면대면으로 의사 소통을 하는 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한다. 사이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이나 의사 소통의 방식은 문자, 음성, 영상, 그래픽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의사 소통 방식보다 때로는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명확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사이버 세계의 도래는 인간의 의사 소통, 정보 획득, 정보 교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인간 생활에

반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형태의 언어사용 방식 역시 일상 생활 속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전의 언어 활동의 양상은 대체로 글과 말로 구별되었다. 말하는 이가 상대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말을 나누게 될 것이고,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글을 쓰게 된다.

그러나 전화나 통신 네트워크 상의 의사 소통은 이런 대면성이 사라지는 경우이다. 전화는 같은 시간에 소리내어 말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사 소통하므로 거리는 멀어도 말로 대화를 나누는 데 거부감이 없다. 통신 네트워크상의 의사 소통에서는 이 구분이 다소 애매해진다. 비동시성, 비대면성에 의해 글쓰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글을 쓰는 모습은 말하기 방식에 의존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읽혀지는 글들은 매체에 의한 의사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이전에 활자로 인쇄되어 읽혀지던 글과는 전혀 다른 글쓰기 의식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⁴⁾.

이 글이 다루는 구어적 텍스트들은 통신 네트워크 상의 의사 소통 방식을 따르고 있는 텍스트들이다. 이런 글들은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일부 일간 신문 등에서 매우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이 전형적인 문어적 소통 매체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통신 네트워크 상의 소통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데서 본고가 다루려고 하는 구어적 텍스트들의 특성과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구어적 텍스트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평범한 글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새로운 장을 열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이버 세계에서의 의사 소통이나 정보 교환의 특성으로는 '익명성, 정보의 개방성, 공간과 시간의 초월성, 동시적·비동시적 상호 작용,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상호작용, 정보의 질적·양적 다양성, 자기 성찰의 기회 부여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 4) 이런 구어적 텍스트의 필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텍스트를 '문어'인 글로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구어'인 말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

(가) 선생님, 먼 옛날 지금부터 27년 전, 저의 고 1때의 추억으로 돌아가 봅시다. 교정에서 강당 쪽으로 1층 끝 교실, 선생님은 그 때 1학년 7반 담임이셨습니다. 그 교실에서 '눈빛이 유난히 맑은'(그 때 선생님의 표현으로) 한 소녀를... 지금은 잊으셨을 거예요. 저희들의 국어 시간은 항상 웃음밭이었지요. 웃으시면 잇몸을 드러내며 함박 웃음을 지으시던 선생님! 아이들이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냐고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니까, '눈에 딱 띄길래 눈 딱 감고 프로포즈했다'고 말씀하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상익·조연희(2000), 우리의 기쁨 영원하기를, 98면, 집문당)

(나) 헤헤^^

아까 정말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려 긴장했다.

내가 아는 이 중에 일케 이쁜 목소리가...--;;;

게시판 지기를 맡게 해주셔서 행복해다.

내가 사랑하는 통사모에 뭔가를 해 줄수 있다는 기쁨...헤 ^^*

게다가 사랑하는 이쁜 우상언니를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다는 행복감~

오늘밤은 가슴 벅찬 기분으로 잠을 이루리라~

우상언니 저 오늘 언니한테 다시금 반했다우~~~ 카~

언니 얼굴만 이뿌신줄 알았더니 목소리까지...

역띠 우리 짱은....호호 ^^*

기분 조오타~~~

(하이텔 동호회 '통신 사랑 -게시판' 에서)

위에 예시한 (가) 글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지글로 40대 후반의 주부가 은사에게 보낸 것이다. (나) 글은 일종의 게시판 글로, 게시판 지기가 된 소감을 쓴 글이다.

(가) 글은 마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쓴 글로 매우 구어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서술어를 완전히 갖추고, 호응 관계를 지키며, 중문과 복문을 많이 사용하는 등, 각 문장을 완결된 문장으로 완성하고 있다. 따라서 (가) 글은 비록 글의

분위기는 구어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구어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다

그러나 (나) 글의 경우, 완성된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어 사람의 표정을 닮은 상형 문자들과 '헤헤'와 같은 의성어들이 글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또 '우상 언니 저 오늘 언니한테 다시 금 반했다우~~~, 카'처럼 물결 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어투와 어조를 반영하고 있다. 서술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 한 장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다른 장면으로 옮겨간다. 즉 사건을 서술하다가 갑자기 구체적인 상대에게 말을 걸고, 또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기분 조오타~~~'며 서술하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5).

쓰기 교육의 입장이라면, 다시 말해 말과 글을 구별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구별하여 표현하도록 지도할 경우, (나)와 같은 글은 '글'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아마도 이 글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구어적 특성들을 문어적으로 다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 (라)는 공식적인 매체에 나타나는 구어적 텍스트의 예이다. (다) 글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잡지의 기사로 일조의 기행문이라 할 수 있는 글이고, (라) 글은 일간 신문의 기사이다. 이들은 모두 필자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5) 이는 말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옴표 같은 문장 부호를 붙이는 정도로 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의 독백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글로 쓴다면 맥락을 보충하고 서술어를 채우는 등의 작업을 더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맥락과 서술어를 보충하여 다듬어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될 것이다.

<아까 정말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려 속으로 몹시 긴장했다. 내가 아는 이 중에 이렇게 예쁜 목소리가 있었던가! 우상 언니가 나에게 게시판지를 맡겨주셔서 행복했다. 내가 사랑하는 통사모에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기쁨, 게다가 사랑하는 예쁜 우상언니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행복감(으로 가슴 벅차다), 오늘 밤은 가슴 벅찬 기분으로 잠을 이루리라.

우상 언니, 저 오늘 언니한테 다시금 반했다우. 언니는 얼굴만 예쁘신 줄 알았더니 목소리까지 예쁘군요. 역시 우리 짱이 최고야. 오늘은 정말 기분 좋다.>

(다) 정말 몰랐다. 파리 인간들도 그렇지, 그럴 줄 알았으면, 광 내고 때 빼고 패셔너블한 옷을 한 보따리 싸갔을 것을. 이탈리아만 그런 줄 알았다.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가 어 떠냐면? <중략> 미국만 다인종 국가냐? 아니다. 유럽도 더 이상 백인 천국이 아니다. 파리에선 특히 아랍계나 흑인들이 정말 많이 보인다. (동양인은 거의 안 보인다.) 더구나 스타일 좋은 흑인. 누구 말 마따나 흑인들도 미국과는 분위기가 틀리다. 옷차림이 틀려서 그런가? 힙합 춤보다 이같이 미니멀하면서 탁월한 몸매를 딱딱 살리게 똑 떨어지는 옷차림이 많다. 물론 외곽에 나가면 다르지만. 아무튼 여자들은 꼬드기느라 바쁜 것을 꼬드겨 사진 몇 방 박았다. 이유? 스타일 조오~참아? 거기다 헛섬하고.

(카이, 2000년 8월 6일, Paris trend #1)

(라) 요란한 음악에 맞춰 차량을 안내하던 짧은 치마 여성들이 주섬주섬 카세트며 앰프를 챙겨드립니다. 사위가 어두워가는 지금은 오후 8시.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귀가를 서두를 시간입니다만, 조명한 창고형 건물 안으로 이어지는 차량 행렬은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일이냐구요? 글썄,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남편을 앞세우고 아이들을 걸리면서 뒤따라가는 민소매 원피스의 아내를 보면 '일'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죠.

(중앙일보 2000. 7. 15. 33면 여름·도시·풍경)

위의 (다) 글은 마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어순이 자유롭고, 일상어, 외국어, 유행어, 어투를 표현하는 어미와 부호 등이 전혀 과되지 않고 사용된다. 또, 자문자답식의 문장 연결과 아주 개인적인 호감도 거리낌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표현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며 어느 정도 자극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다. 글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낯설지만, 마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듯하여 독자들은 꽤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⁶⁾. 그러나 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상의 의사 소통

6) '독자평'을 비롯하여 이 잡지의 여기저기에 이 글을 쓴 기사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런 글은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형태이다.

(다)와 같은 글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나,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만이 아니라 좀더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매체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라) 글은 (다) 글에 비하여 일간지라는 좀더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매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필자의 의도와 표현은 (다)글과 유사하다.

(라) 글의 경우, (다) 글에 비하여 독자층이 넓고, 공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나 (다) 글처럼 지나치게 이질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다. 이 글의 필자는 텔레비전 방송의 리포터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듯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다) 글처럼 구어의 어미를 사용하고, 명사로 끝나는 문장, 자문자답식의 문장을 사용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는 중요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라) 글이 구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본래 이 글의 목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주부들을 독자로 하여 '여름 저녁의 대형 할인점에서 볼 수 있는 소비자 행태'를 알려주는 기사문의 정보 전달적 목적 수행에 매우 충실하다. 오히려 주부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쓰여져서 더 쉽고 충실하게 글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필자는 정형화된 기사 양식에 맞추어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무미 건조한 기사문 대신에 독자에게 정말 말하는 듯한 글을 씀으로써 편안함을 제공하면서 실제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력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정보 전달 효과도 얻은 것이다⁷⁾.

이 (다)와 (라) 글과 같은 문체의 구어적 텍스트는 점차 여러 매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신문, 잡지처럼 보편적인 대중 매체에서도 이런 유형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언어 소통 방식으로

7) 이런 기사문들은 신문이 지면을 독자층이나 주제에 따라 분할하고 여성이나 청년층을 주요 독자로 인식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쓰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자 변인이 쓰기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실제 기사문의 형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용되고 있다.

위의 (가)에서 (라)의 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구어적 텍스트는 분명히 글이면서도 구어와 문어, 구어체와 문어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 텍스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읽을 것을 바라면서 화면 또는 지면 위에다 써 놓은 ‘글’이다.

그리고 이 글의 필자들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사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글’의 기본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형식은 상대와 직접 대면하여 말을 건네는 듯한 ‘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과 닮게 한 글이다. 다시 말해 이 텍스트의 필자들은 분명히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상대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대화 상황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필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의사 소통 상황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의사 소통 방식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명히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의 의사 소통은 글을 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런 글을 쓰는 필자들은 이 의사 소통 과정을 궁극적으로는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실제 대화에서처럼 상대와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어적 텍스트의 필자들은 글을 매체로 사용하지만, 가능한 말과 같은 글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의 필자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대화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먼저 이 텍스트가 실리고 있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독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잡지, 신문의 섹션과 함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에게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매체로 인식된다. 특히 전자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부여하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됨으로써 인간 관계의 필수 요소인 상대방이 다양하게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다. 항상 다수의 상대와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한데다, 자신의 말과

글의 공익성을 검열 받지 않는다. 거기다가 필요하면 참여자의 익명성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매체보다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⁸⁾. 이런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이상, 구어적 텍스트들의 필자들은 이 관계망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의사 소통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글의 독자들에게 대한 고려이다. 대체로 구어적 텍스트의 독자들은 어느 정도 그 특성이 한정되어 있는 이들이다.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라면 같은 동호회 회원들일 것이고, 신문이나 잡지라면 그 기사가 실리는 지면의 특정 독자들(주부, 대학생, 중 고등학생 등)로 구체성을 지니는 이들이 독자들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고, 그들의 성향과 반응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훨씬 더 구체적인 독자 예측이 이런 유형의 글쓰기가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

이 장에서는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⁹⁾.

통신 네트워크 상에 나타나는 구어적 텍스트들은 대개의 경우, 앞에서 예를 들었던 잡지나 신문의 기사처럼 자신만의 문체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필자의 글이 아니다. 그런 글들은 글이 읽혀질 때의 특별한 효과를 의식하여 필자가 의도적으로 개성적인 언어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필자가 의도적으로 구어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

8) 이러한 익명성이 남용될 때 무책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참여자들은 통신상의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낀다(박현순, 1997:29).

9) 이를 위해 본고는 여러 가지 구어적 텍스트 중에서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나타나는 구어적 텍스트를 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이들 텍스트에 나타나는 구어적 특성에 맞추어질 것이며 경우에 따라 그런 표현을 하는 필자의 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 제시되는 예들은 뒤에 자료로 첨부된 글에서 뽑으려고 하였다. 자료글은 하이텔의 통신사랑 동호회의 게시판에서 연이어 올려져 있는 4편을 따온 것으로 통신 네트워크 상의 게시판 글의 일반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다. 그러나 통신 네트워크 상의 구어적 텍스트의 필자들은 ‘게시판 글’ 정도의 소박한 장르 의식을 가지고 글을 쓴다. 게시판에 자기가 쓴 글을 올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읽고 간다는 정도의 장르 의식이다. 따라서 같은 게시판 글이라도 전형적인 글에 가까운 것도 있고, 말에 가까운 것도 있다¹⁰⁾. 그러나 대부분의 필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꾸밈없이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텍스트들은 전문적인 필자의 글보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 태도를 어떻게 자신의 글에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데 용이하다.

이 장에서 살펴보려는 구어적 요소는 축약어 사용, 표음적 표기, 표기의 혼란, 유행어의 사용, 상감 문장과 같은 비언어적 기호의 사용, 의성어 삽입, 개성적인 어투의 반영, 용언의 생략, 잦은 휴지, 띄어쓰기의 거부, 단어·표현의 잦은 반복, 길게 이어지는 문장, 어투 등이다.

가. 축약어 사용

- 그래서 아침에 축구한걸 차는데 왜 그렇게
- 벨은 수학여행(내일)
- 오늘 일몰이러서(일요일)

게시판 글에서 사용되는 축약어는 주로 모음이 축약된 형태가 많다. 이는 글을 신속하게 쓰려는 의도도 있지만, 실제 말하는 것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을 말로 가리킬 때 대개의 경우, ‘나는 순잡니다.’ 혹은 ‘영습니다.’라고 하지 ‘순자입니다, 영수입니다.’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0) 게시판 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화방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구어는 없다. 이는 필자들이 자신의 글이 같은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 의사 소통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이다.

나. 표음적 표기

- 오늘 하루는 정말 올수도 없꼬
- 게시판 지기를 맡게 해주셔서 행복해따.
- 핫김에 애꿎은 생맥주만 마셔대구....
- 어휴...다리 힘은 다 풀리고 맥주까지 만이 마셨는데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도 단순히 맞춤법 오류라기보다는 말이 지니는 생동감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마셔대구'처럼 통신 사용자의 어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려고 한 표기는 구어에 좀더 가까워지려는 의식적인 표기라 할 수 있다.

이 표음적 표기형들은 위의 축약어와 같은 의도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표기의 혼란

-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 학교다닐때는 하루에 몇 개임씩뛰어두

여기 제시된 '열심히'와 같은 경우는 필자가 맞춤법을 모른다거나 혹은 무의식적인 오동작(오타)의 결과라고만 할 수는 없다. '-두' 유형의 경우, 실제 구어 상황에서도 '-도'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와 같은 경음의 노출이나 표기 혼란 실태는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근본 동인을 표기법의 문란 현상이라기보다는 필자의 의도적인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필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구어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표기의 혼란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 유행어의 사용

- 쌤 쌤이 하루.....
- 비록 알바 이지만....
- 지금 험편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 생각한건 온니 한가지...
- 역띠 우리 짱은.....호호 ^^*

말 속에 유행어를 섞어 쓰는 것 역시 구어의 중요한 특성이다. 직접성과 일회성, 현재성을 지니고 있는 구어는 생생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 속에 자주 유행어를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상대와 연령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흥미, 관심거리를 지니고 있는 통신 참여자들도 자기 언어의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유행어의 사용은 동료 의식을 강하게 하여, 더 적극적인 의사 소통의 조건을 제공해준다.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유행어가 자주 많이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마. 비언어적 기호의 사용

- 가뿐했는데....T.T
- 일찍자야지..-- ° °
- 역띠 우리 짱은.....호호 ^^*

위의 예에서 나타나는 'T.T'나 '^^*'은 간단한 기호를 이용하여 말하는 이의 표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상감 문자들이다¹¹⁾. 이 상감 문자는

11) 상감문자는 스마일리(smily)라고도 하는데 화자가 텍스트로 전달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이모티콘(emoticon)이라 한다. 또 '안나세요, 어썩요, 1004 등'과 같이 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재미있는 전달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철자법을 틀리게 하는 경우를 이모텍스트(emotext)라고 한다.

자판에 존재하는 몇 가지 음운이나, 기호를 이용하여 사람의 표정과 유사한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 상감 문자는 온라인 상의 의사 소통이 면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표정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슬프다든지 겸연쩍다와 같은 정서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 구어적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상감 문자가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사용을 일상적인 것과 차별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의사 소통 과정이 비대면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상대에게 유형화된 표정이라도 전달하여 비대면의 대화적 상황을 보완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좀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필자가 게시판 글이 지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라 생각할 수 있다¹²⁾

바. 의성어 삽입

- 벌써 축 늘어지다니...흑흑
- 거기서 카메라 받았더여...하하하
- 내가 사랑하는 통사모에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기쁨...헤 ~*~
- 우상언니 저 오늘 언니한테 다시금 반했다우~~~ 카~

의성어를 문장 중간에 자주 삽입하고 있는 것도 위의 상감 문자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³⁾.

- 12) 이모티콘이나 이모텍스트의 존재는 타자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과이다. 이들은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방이 텍스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존속하겠지만, 시청각이 모두 실시간으로 전달이 가능하게 되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병우, 1999:92).
- 13)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의성어, 외태어의 사용에 대하여 박갑수(1998)에서는 이들이 신세대들이 감각적 표현을 추구한 결과로, 주로 특수한 장면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는 ‘파당, 페

사. 개성적인 어투의 반영

다음에 제시되는 용언들의 어미는 규범적인 것도 아니며, 실제로 글이나 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 2년만에 뛰는 축구라 넘 힘들었음와...
- 그냥 끝문앞에 앉아서 골기퍼랑 돌이 놀았져...히히
- 거기서 카메라 받았떠여...하하하
- 오늘 추천해서 경품주는 시간이 있었거덩여
- 우상언니 저 오늘 언니한테 다시금 반했다우~~~ 캬~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음적 표기를 통해 말을 옮겨 놓은 듯한 효과를 주는 의식적인 노력과는 다른 면에서 필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어는 규범적인 언어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필자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비하여 구어는 각자가 가진 어투나, 억양까지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개성적인 어투나 억양은 자기 자신은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장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억양이나, 어투와 같은 말이 가지는 독특성을 대신하여 통신 사용자들은 특이한 어미를 사용하거나, 억양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창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개성을 자신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어미나 억양 혹은 이모티콘과 같은 특별한 장치를 통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아. 용언의 생략

- 내가 아는 이 중에 일케 이쁜 목소리가....--;;;
- 언니 얼굴만 이쁘신줄 알았더니 목소리까지...

떼굴, 뻑, 발라당, 쿵'을, 썰렁한 분위기나 썰렁한 말을 들었을 때는 '음냐냐...', '쩍...'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생략은 주로 용어의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이 때 생략되는 용어는 문맥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축약어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쓰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굳이 완결된 문장을 꼭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구어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잦은 휴지

- 케이스도 거의 망가지고...흑흑
지금 헨편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좋은일이 있었습다....

잦은 휴지는 구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글을 쓰는 경우에는 도중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뒷말과의 간격이 벌어져도 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는 한 어절 정도의 말을 하고 나면 거의 언제나 행을 바꾸거나, 말줄임표 등을 사용하여 휴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쓰는 것이 아닐, 머리 속에 떠오르는 대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글이 명제 단위로 끊겨져 있는 것은 곧 머리 속에서 생각이 형성되어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차. 띄어쓰기의 거부

- 오늘 하루는 정말 울수도 없꼬
- 한켁도 다뛰기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 학교다닐때는 하루에 몇 개임씩뛰어두

쓰기에서 띄어쓰기는 실제 발화에서의 휴지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단어라는 의미적, 기능적 단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언어의 단위들은 분절적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실제 말하는 언어 단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의존 명사나, 일 음절의 부사, 수

관형사 등과 같이 그 길이가 다른 어절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 이상 분절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또 말을 할 때는 절이나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이 끝났다고 더 오래 쉬는 것도 아니다. 생각의 흐름에 따라 더 오래 쉬기도 하고, 조금만 쉬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나타난 띄어쓰기의 경우도 실제 구어에서의 분절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카. 단어·표현의 잦은 반복

- 오늘 하루는 정말 울수도 없꼬
웃을 수도 없는 하루다.....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지라 안갈수도 없었고
- 내가 사랑하는 통사모에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기쁨...헤 ^^*
게다가 사랑하는 이쁜 우상 언니를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다는 행복감~

구어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듬이나 운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리듬이나 운율은 또한 반복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위에 제시한 동일유형의 반복은 그런 구어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순간적인 언어사용이 아니지만 비슷한 문장 유형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어 소리내어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재미와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다.

타. 길게 이어지는 문장

-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지라 안갈수도 없었고
비록 알바 이지만...
그래서 아침에 축구한점 차는데 왜 그렇게
힘들든지...
한점도 다뛰기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플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나
취가 생기지 않나
2년만에 뛰는 축구라 넘 힘들었음봐...

통신 상에 사용되는 문장은 호흡이 길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의 경우처럼 휴지와 행바꿈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장으로서의 지나치게 긴 문장임에 틀림없다. 이 역시 구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절하고 단정적인 문어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파. 어투

통신에서 사용되는 구어적 텍스트들은 특히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인지하여 글을 쓴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구어적 텍스트가 이야기 들려주기의 어투를 지니는 것과 관련하여 김미향(1998 : 9-10)은 ‘-라,’ ‘-더라’ 형태의 어미는 ‘구어체. 직접 지각, 거리감 있음, 관심거리임’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마치 작자가 직접 장면을 보고서 청자에게 얘기하는 듯한 표현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특징은 통신상의 구어적 텍스트의 전달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래의 경우, ‘-다’와 같은 문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자신이 행동한 사건인데도 사건을 전달하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14) 여기에 제시된 것 외에도 통신어에는 사투리와 언어 유희에 의한 신어가 많이 쓰인다. 이들은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에 좀더 관심을 갖고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박갑수, 1998 : 92-93).

15)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내 말을 들려주는 행위이다. 말을 들려준다는 것은 대화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들려주는 행위의 특성은 구어적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구어적 텍스트들이 구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실제 구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말하듯이 쓰려고 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글들을 구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어체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 그냥 끝문앞에 앉아서 끝기퍼랑 둘이 놀았져...히히
- 오늘 추천해서 경품주는 시간이 있었거덩어
- 달랑 네명 뽑았는데 거기에 제가 뽑혔다는거 아십니까....하하하
- 며칠전에 보니.. 펌프가 업이 되어서... 나왔더군요...
- 그니깐 하기가 아까더군요... 그래도 꾀꿱이 했지만서도...

여기에서 '놀았져'는 '놀았지요'를 줄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있었거덩어(있었거든요), 뽑혔다는거 아십니까(뽑혔다는 것 아십니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나왔더군요', '아까더군요(아깝더군요)'는 '-더라'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 김미향은 문장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옛 문장의 문장 연결 방식에서 특이한 점을 우선 종결형보다 연결형을 즐겨 씀으로써 문장의 길이가 분절없이 길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문장이 숨가쁘게 계속 연결되거나 아니면 연결 어미 부분에서 뚝을 두는 것과 같은 구연 의식을 가지고 문장에 임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런 사건의 구어적 전달을 보여주는 구연 의식은 게시판 글의 경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지라 안갈수도 없었고
비록 알바 이지만....
그래서 아침에 축구한검 차는데 왜 그렇게
힘들든지...
한검도 다뛰기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나
취가 생기지 않나
2년만에 뛰는 축구라 넘 힘들었음봐...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연결 어미 부분에서 말줄임표를 이용하고 행을 바꿈으로써 뚝을 두도록 하는 것은 '-더라'에서 살펴 본 것처럼

럼 청자에게 사건을 전달하는 구연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옛글의 특이한 연결 어미로 ‘-는데’를 들면서, 현대 문장 같으면 길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에 쓰인 ‘-는데’는 연사가 문장을 길게 이어가다가 이제 곧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김미향, 1998 : 15)16). 다음의 경우에도 ‘-는데(-는데)’는 ‘-는데’ 이후에서 행갈이를 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 또 축구 하라구 하는데...
- 어휴...다리 힘은 다 풀리고 맥주까지 만이 마셨는데
- 무슨 재주도 뛰어들어.....
- 그냥 골문앞에 앉아서 골기퍼랑 돌이 놀았져...히히

이상에서처럼 통신에서 사용되는 이들 텍스트들은 문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자신이 행동한 사건인데도 사건을 전달하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으며, 문장이 계속 연결되거나 아니면 연결 어미 부분에서 틈을 두는 것 같은 구연 의식을 가지고 글을 씌으로써, 실제로는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어투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은 축약어 사용, 표음적 표기, 표기의 혼란, 유행어의 사용, 상감 문장과 같은 비언어적 기호의 사용, 의성어 삽입, 개성적인 어투의 반영, 용언의 생략, 잦은 휴지, 띄어쓰기의 거부, 단어·표현의 잦은 반복, 길게 이어지는 문장, 어투 등이었다. 이 특성들은 필자들이 기기 사용이 서투르다거나, 국어 지식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체계적이

16) 다음의 예에서처럼 ‘-는데’는 전체적으로 길고 긴 문장을 읽는 데에 중간 중간에 호흡을 주며 뭔가 그 다음 사건을 기다리게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예: 아즉 초저녁인디 혈마 도적놈 드러올나구요 하면서 미다지를 열고 나서는데 나히 열 다섯쯤 되고 얼굴이 동구슈름하고 어엿쁜 얼굴이다.

- <선중매> 중

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즉 이 특성들은 구어적 텍스트의 필자가 이들 요소를 통해 자신의 글이 문어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와의 친근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글쓰기를 독자와의 대화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구어적 효과를 유지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¹⁷⁾.

4. 구어적 텍스트의 쓰기 교육적 의의

최영환(1998:140)은 매체의 변화로 인해 국어사용 및 국어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때의 근본적인 변화란 언어를 사용하는 양상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언어를 보는 관점의 변화로, 매체를 이용한 표현 과정에는 인지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각 표현 방식에 내재된 인지 과정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습관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매체를 접할 때 단순히 언어를 사용하고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각 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어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언어사용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사용의 방식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어적 텍스트를 교육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들 텍스트가 의사 소통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언어사용 양상이며,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의 확산과 함께 학생 청소년층으로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또 이런 글이 통신 네트워크를 벗어나 일상적인 언어사용 장면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매체의 변화에 따른 언어사용 양상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17) 구어적 텍스트의 필자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박갑수(1998)에서는 통신어들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PC 통신을 통해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을 즐기며, 여기에는 그들만의 기발한 표현, 감각적 표현이 드러나며, 기성의 규범이 파기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표현은 무엇보다 구어성, 감각성을 지니며 언어의 경제성을 지니 간략화, 축약화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방식의 언어사용 양상을 이해하고, 이의 교육적 가치를 가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로 다룬 게시판 글과 같은 구어적 텍스트가 등장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의사 소통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PC 통신과 인터넷 같은 새로운 의사 소통 매체가 일반화된 것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구어적 텍스트는 이런 매체를 바탕으로 ‘글’을 주요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전의 ‘글’의 소통 방식에 비해, ‘말’의 소통 방식에 근접한 것으로 의사 소통을 글에 비하여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 매체를 사용하는 의사 소통은 훨씬 더 구어적인 환경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정보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상으로 소통되고 컴퓨터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추게 되는데다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로서 모든 의사 소통 활동과 정보 저장, 활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지면에 나타나는 정형화된 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매체의 변화로 인한 소통 상황의 변화는 쓰기의 결과물인 글의 형태 변화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글을 쓸 것을 지도한 ‘쓰기’ 교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의 쓰기 교육은 ‘글’을 쓰는 것으로, ‘문어적 텍스트’의 생산을 전제로 한다. 즉 쓰기는 글과 말의 특성을 구별하여 글을 쓰는 것이며, 필자의 글쓰기란 자신이 쓰려는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글과 비슷한 글의 특성 및 독자, 글의 목적, 쓰기 과제와 같은 여러 가지 수사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어적 의사 소통 과정’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쓰기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글감에 대한 필자의 지식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쓰기 능력의 미숙성, 또는 자신이 써야 하는 글의 성격에 대한 개념 혼란과 같은 글의 특수성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버라이어터Bereiter(박영목 외, 1995: 184 재인용)가 내세운 필자의 쓰기 능력의 구성 요소는 ‘문자언어 표현의 유창성’, ‘쓰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과 관습의 통달성’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문어 텍스트를 전제로 하는 문어 사용 능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쓰기는 필자가 '구어'보다는 '문어'적 전통에 익숙해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쓰기 교육도 이와 관련한 여러 인지적, 과정적 지식에 통달하고 이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인지적, 과정 중심적 쓰기 교육과 달리 구성주의적 쓰기 교육은 필자와 독자, 필자와 담화 공동체와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다고 본다. 쓰기를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보고 필자와 독자의 정신적 상호 작용을 중시하여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의미 협상 과정에 의해 쓰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필자와 독자는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상황을 창출하며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며 쓰기에 필요한 인지적인 절차와 능력은 사회적 상황, 즉 담화 공동체 속에서 발생되어 그곳에서 실현된다(최현섭 외, 2000). 이에 따르면 쓰기에 관련한 지식이나 기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며, 전범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글보다는 담화 공동체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글이 가치를 인정받는다.

본고는 구어적 텍스트의 확대 현상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필자가 독자와 자신의 글이 소통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글의 여러 특성들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하였다. 구어적 텍스트의 필자는 독자와의 의미 협상 과정, 구성적 의미 형성 과정을 염두에 두고 개인과 담화 공동체와의 사회적 대화의 연장으로서 쓰기를 수행한다. 이런 대화적 특성에 따라 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과 대화 공동체의 요구 등에 따라 글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변화된 글의 형태는 사회적인 소통 양상으로 수용하며 또 수용된다. 이 과정을 거쳐 의미 협상과 수용의 결과인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이 공식화된다. 구어적 텍스트는 이런 점에서 새롭게 공식화되고 있는 글쓰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급속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는 강력한 매체의 도움을 얻어 매체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점에서 구어적 텍스트를 어떻게 국어 교육, 특히 쓰기 교육이 수

용할 수 있으며, 그 때에 강조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¹⁸⁾. 특히 현재 구어적 텍스트의 주된 사용자들이 교육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 텍스트를 어떤 시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¹⁹⁾.

이와 관련하여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필자의 구성적 글쓰기 방식과 상위 인지적 언어사용 능력이다.

구어적 텍스트가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필자가 쓰기의 상황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때문이다. 구어적 텍스트가 생산되는 상황에서 필자는 자신과 독자의 거리가 대화 장면처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인지하고, 그에 따라 글을 쓴다. 그러나 그 거리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글과 말의 관습적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자는 또다시 자신이 바라는 글의 목적과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어적 특성을 뛰어넘는다²⁰⁾.

- 18) 의사 소통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것이 지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교사가 학습자에게 글쓰기와 관련하여 어떤 구성적 지식과 전략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또 학습자의 상위인지적 언어사용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쓰기 과정에 관여하며, 그것의 올바른 지도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구안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무리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본고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쓰기 교육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 19) 기존 글쓰기 관습이 새로운 글쓰기 형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글쓰기 공동체 혹은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가치관, 인지 방식 등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 이런 변화는 각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쉽게 변화를 공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실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여러 교재, 이론서 등은 여전히 고전(古典)적이라고 할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다.
- 20) 이 때 의도적이라는 것은 구어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들이 상황이 바뀌면 적절한 형태의 문어적 텍스트도 생산할 수 있으며 필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편지글과 같은 문어적 형태를 유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필자가 구어적 특성을 선택한 것은 필자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필자는 통신이라는 새로운 의사 소통 상황 아래에서 독자와의 효율적인 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글쓰기 상황과는 다른 문체 선택의 압력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 압력에 의해 현재의

필자가 쓰기의 상황 맥락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표현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일종의 상위 인지적 언어사용 능력으로 필자의 언어사용의 능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글에서 살펴 본 구어적 텍스트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필자들의 상위 인지적 언어 능력의 차이는 매우 크다. 능숙한 필자들은 자신의 글을 매끄럽게 자신이 설정한 언어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필자들은 말의 특성이나 글의 특성이 혼용되어 있고, 독자에게 읽혀졌을 때의 효과도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글을 쓰게 된다.

결국 이들 미숙한 필자들을 능숙한 필자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쓰기 교육의 목적이란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쓰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글쓰기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즉 필자가 자신의 쓰기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문체나, 표현을 조정해 가면서 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쓰기 교육은 쓰기의 과정적 특성보다 구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자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이 소통되는 상황 맥락을 인식하고 독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글쓰기가 가져오게 될 결과를 예측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또 필자의 이런 능력은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해나가는 상위 인지적 능력의 한 부분이기도 하므로 매체의 변화와 새로운 매체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쓰기 상황 아래에서 쓰기 지도는 필자에게 자신의 쓰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정, 통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쓰기의 구성적 특성을 이용하고, 필자의 상위 인지적 쓰기 능력을 신장시켜 이제까지의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글쓰기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상황 아래에서도 적절한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연한 글쓰기 방식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통신상의 글쓰기의 모습들은 문어적 특성 대신 구어적 특성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쓰기 교육의 초점은 학습자인 필자들이 자신의 쓰기의 상황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효과를 인식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태의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데 맞추어졌을 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쓰기의 상황 맥락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매체의 다양화와 의사 소통 방식의 변화처럼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하게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쓰기 교육은 학습자인 필자가 변화하는 의사 소통 방식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스스로 구안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쓰기 교육은 필자를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형성하고, 심화해 나갈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자율적인 학습자로 교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앞에서 최근의 의사 소통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쓰기의 결과물인 '글'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언어 표현이라는 측면으로 우리들의 언어사용 방식을 확대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의 모습이 더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의사 소통 매체가 보편화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더 많이 더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표현을 즐기고,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는 새로운 사회 풍조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쓰기 교육은 이러한 현상을 고무하고, 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그 교육적 역할과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미향(1997), “문체와 문체요인(1)- 문장의 종결, 연결 방식”, 『한양어문』 제15집, 한양어문학회.
- 김연주·조영희(1998), “국어 구어체 종결어미의 사용빈도에 대한 연구-서울말과 경상도 말의 비교”, 『국어국문학연구』 26,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 김열규 외(1994.12), “텍스트 언어학에 의한 국어 및 국어문장의 모형 정립을 위한 연구”, 『인제 논총』 10-2, 인제대학교
- 김유미(1996), “자기 조절 전략 수업과 상위인지가 아동의 작문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 연구』 34-5, 한국교육학회.
- 김홍수(1988), “언어학적 문체론의 위상과 과제”,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 박갑수(1994), 『국어 문체론』, 대한교과서.
- 박갑수(1998), “신어의 실상과 그 순화 방안”, 『일반 국어의 문체와 표현』, 집문당.
- 박갑수(1999), “새 천년과 우리 언어 문화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학 연구』 9, 국어교육학회.
- 박성익(1998), “사이버 세계에서 의사 소통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상담 기법의 고찰”,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7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박영목 외(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박영목 외(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 박옥현(1997), “언어 갈등에 관한 연구- 구어와 문어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 박태호(1996),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 연구”, 『교육한글』 9, 한글학회.
- 박태호(1998),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는 사회구성주의 쓰기 교수이론”, 『청람어문학』 20, 청람어문학회.

- 박현순(1997), "PC 통신을 통한 인간관계", 『학생연구』 32-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송현정(1997), "쓰기와 구성적 언어 지식과의 상관성 연구", 『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엘렌 가네(1985, 이용남 박분희 역, 1993), 『인지심리와 교수 학습』, 교육과학사.
- 웅(1982, 이기우 외 역1995),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문예출판사.
- 원진숙(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 육영해(1998.2), "구성주의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교육학연구』 36-1, 한국교육학회.
- 이성만(1999), "문어 텍스트의 구성과 저자 전략", 『인문논총』 15,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은경(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 34, 국어학회.
- 정홍진(1996), "쓰기 과정별 저해 요인의 해소를 통한 쓰기 능력 신장 연구", 『교육한글』 9, 한글학회.
- 최병우(1999), "정보화 시대의 국어 교육", 『국어과 연수교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최영환(1998), "매체 변화에 대응하는 국어교육",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현섭 외(2000), 『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 David Buckingham and Julian Sefton-Green(1994), *Cultural Studies Goes to School -Reading and Teaching Popular Media*, Taylor & Francis Inc.
- Gregg, S. W. & Steinberg, E. R.(eds)(1980), *Cognitive Process in Writing*,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Kellogg, Ronald T.(1994), *The Psychology of Writing*, Oxford University Press

< 자료 : 하이텔 동호회 '통신 사랑 -게시판' 에서 >

제 목:[고월]쌤쌤이 하루..... 관련자료:없음 [31358]

보낸이:장용우 (Marin13) 2000-05-21 20:11 조회:12

오늘 하루는 정말 울수도 없꼬
웃을 수도 없는 하루다.....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지라 안갈수도 없었고
비록 알바 이지만....
그래서 아침에 축구한켈 차는데 왜 그렇게
힘들든지...
한켈도 다뛰기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나
취가 생기지 않나
2년만에 뛰는 축구라 넘 힘들었음파...
학교다닐때는 하루에 몇 개임씩뛰어두
가뿐했는데....T.T
그래서 결국은 지고..
찾김에 애꿎은 생맥주만 마셔대구....
아직두 열시두 안됐는데
벌써 축 늘어지다니...흑흑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또 축구 하라구 하는데..
어휴...다리 힘은 다 풀리고 맥주까지 만이 마셨는데
무슨 재주도 뛰어.....
그냥 끝문앞에 앉아서 끝기퍼랑 들이 놀았져...히히
그러다가 오후에 줄다리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바람에 이겼는데..
근데 뺨편이 거의 작살날뻔 했습파....T.T
액정에 기스 열나게 많이 나고
케이스도 거의 망가지고...흑흑
지금 뺨편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좋은일이 있었습다....
 오늘 추천해서 경품주는 시간이 있었거덩여
 거기서 카메라 받았떠여...하하하
 달랑 네명 뽑았는데 거기에 제가 뽑혔다는거
 아닙니까....하하하
 경품치고는 카메라 꽤 괜찮더군여..호호호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한건 온니 한가지...
 이젠 제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뿐...T.T

제 목:[유리] 관련자료:없음 [31359]
 보낸이:이유리 (loveyur) 2000-05-21 21:06 조회:10

널은 수학여행.
 6시 반까지 나가야된다.
 5시반까지 일어나야된다.
 일찍자야지..--_-- ° °

제 목:우상언니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했다. 관련자료:없음 [31360]
 보낸이:마승아 (체리마녀) 2000-05-21 21:41 조회:22

헤헤^^
 아까 정말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려 긴장했다.
 내가 아는 이 중에 일케 이쁜 목소리가....--;;;;
 게시관 지기를 맡게 해주셔서 행복해따.
 내가 사랑하는 통사모에 뭔가를 해 줄수 있다는 기쁨....헤 ^^*
 게다가 사랑하는 이쁜 우상언니를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다는 행복감~
 오늘밤은 가슴 벅찬 기분으로 잠을 이루리라~
 우상언니 저 오늘 언니한테 다시금 반했다우~~~ 카~
 언니 얼굴만 이뿌신줄 알았더니 목소리까지...
 역띠 우리 짱은....호호 ^^*
 기분 조오타~~~

제 목:펌프3....

관련자료:없음 [31367]

보낸이:이성희 (karam96) 2000-05-22 01:33 조회:14

며칠전에 보니.. 펌프가 업이 되어서... 나왔더군요...
신기한 맘에... ^^;;;
며칠전부터 열심히 호호~
침에 간데가 글썄.. 펌프가 200원...
울 동네에 와보니 흑~~~
500원... ㅠ.ㅠ
그니깐 하기가 아까더군요... 그래도 곳곳이 했지만서도...
노원역에 200원짜리 펌프있져요.. ^^
나중에 그 동네에 갈일있음 함 해보세요 헤헤~ _-;;;
easy는 쉬워서 3판을 다 하는데...
흑~ 하드는 모 그리 어려운겨.. ㅠ.ㅠ
2판에서 항상 실패를... --;;;
열심히 해서 깨야지... ^^;;;
오늘도 동생이랑... easy 두판하고 hard한판을 하고...
친구들이랑... hard와... 더블을.. _-;;;
하드는 겨우겨우 두판 깨보고...
더블을 올라가자마자 엉엉~~
나두 더블해보구과~~~
못하는 더블해서.. 아까운 돈 천원만.. ㅠ.ㅠ
아갑당... _-;;;

<초록>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과 쓰기 교육적 의의

김 경 주

본고는 컴퓨터 상에서 사용되는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과 그것의 쓰기 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구어적인 글쓰기 방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들 텍스트는 의사 소통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언어사용 양상이며, 매체의 확산과 함께 학생 청소년층으로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또 통신 네트워크를 벗어나 일상적인 언어사용의 장면들에서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글의 필자들은 통신 네트워크 상의 글쓰기를 개인간의 대화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글을 쓸 때에도 다양한 구어적 특성을 활용하여 독자와의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구어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은 축약어 사용, 표음적 표기, 표기의 혼란, 유행어의 사용, 상감 문자와 같은 비언어적 기호의 사용, 의성어 삽입, 개성적인 어투의 반영, 용언의 생략, 잦은 휴지, 띄어쓰기의 거부, 단어·표현의 잦은 반복, 길게 이어지는 문장, 어투 등이었다.

이렇게 매체의 변화로 인하여 국어 사용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국어 교육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로 생각할 때, 쓰기 교육은 이런 변화를 '오용 현상' 혹은 '교정 교육의 대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매체 환경에 따른 글쓰기'로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지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쓰기 교육은 쓰기의 과정적 특성보다 구성적 특성을 강조하여야 하며, 필자의 상위인지적 조정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operty of the Spoken Style Text & Writing Education

Kim, Kyoung-joo

This article focused on the properties of the spoken style text and the meaning of the writing education.

As the computer and internet were generalized, the spoken style method in writing was diffused. The writers of this style had the tendency that they thought the writing on the internet as the extension of the private dialogue with the persons. So in their writing, they had the tendency of writing using the various the spoken properties and maintaining the intimacy of the readers.

This article thought that the properties of the spoken style text were the using contractions, the phonetical writings, the confusion of representing, the using words in fashion, the inserting of the onomatopoeias, the reflecting his personal way of speaking, the omitting the predicatives, the frequent pausing, the rejections of the leaving a space, the frequent repeating of the words and phrases, the long sentences, the writing as his manner of speech.

Because the usages of the Korean were changed for the change of the media, thes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seriously. Especially, if the texts were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 interactions, we have to think these changes as 'the writing as the media properties' rather than 'misusing' or 'the target of the revising', and find the way of the appropriate methods of the teaching in writing education. So, writing education focuses on the constitutional properties than the processional proper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meta-cognitive controlling abilities that the writers have had.